

## 위안부문제, 다시 생각해야 하는 이유

박유하 (세종대)

### 1. 들리지 않았던 목소리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4월 16일에 일어난 세월호의 비극에 희생된 여러분들에 대한 애도의 마음을 표하기 위해 많은 행사들이 취소되고 연기되는 가운데 오늘 이 행사를 예정대로 강행하는 이유는 오늘 다루는 문제가 실은 세월호의 비극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위안부문제 발생 이후 20여년이 지나도록 위안부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언컨대 위안부문제에 관한 이해와 해결을 위한 방식이 변하지 않는다면 위안부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일관계는 지금이상으로 치명타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 모임은 그러한 인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위안부문제에 관한 인식의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준비한 모임입니다.

지금 한국의 지원단체와 정부는 이 문제에 관해 `법적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라고 일본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여분 계시다는 위안부할머니들 중에는, 실은 그와는 다른 의견을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도 그 분들의 목소리는 그동안 들려오지 않았습니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다른 누구보다도 먼저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려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목소리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동안 우리는 왜 그런 목소리들을 듣지 못했을까요.

그동안 들려오지 않았던 목소리들을, `지금 이곳`의 또다른 목소리들을 들어보려는 이 심포지엄을 준비하면서, 그러한 물음은 사실 위안부할머니뿐 아니라 지원단체, 심지어 학자 에게도 해당되는 물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물론 일본의 지원단체나 학자 등 관계자들에게도, 위안부문제에 관련해 주류가 되어 있는 이해나 상식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일은 생각보다 자유롭지 않았습니니다. 그건 꼭 타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자의에 의한 경우가 많았습니니다. 그러나 그 `자의`란 실은 우리모두가 암묵적으로 강요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위안부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은 그렇게 다양한 목소리들이 들려오지 않았거나 적절한 언로가 주어지지 않아 공유되지 않았다는 데에도 원인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안부문제를 풀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우선 그런 목소리들을 듣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우리자신의 생각을 함께 말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위안부문제는 우리가 아는 이상으로 복잡한 문제이고, 더구나 문제발생이후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더더욱 복잡하게 꼬여버린 문제여서, 그러한 복잡한 문제에 관한 인식과 의견이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오히려 비정상적인 일이 아닐까요. 따라서 오늘의 이 자리는 너무나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다양한 목소리를 한자리에 모아,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방법 자체를 고민해 보려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위안부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이유로 당사자들이 연로하다는 사실을 모두가 말합니다. 하지만 실은 연로하신 분들은 위안부 당사자들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분들, 이 문제의 해결을 오랫동안 노력해오신 지원자와 학자분도 어느덧

노년의 연세에 이르신 분들입니다. 이 분들은 그동안 위안부문제 발생초기부터 목소리를 내고 이 문제해결을 위해 연구와 행동을 통해 그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목소리가 곡해되거나 망각되어 위안부문제를 둘러싼 논의의 중심에서 배제되었던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이 분들이 위안부문제의 논의와 운동의 중심에 계셨다면 위안부문제를 둘러싼 양상은 지금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진작에 해결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2년 겨울, 이 문제해결을 위해 오래 애써왔던 한 분인 시미즈 스미코 전 참의원이 작고하였습니다. 저는 같은 해 7월에 일본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미나를 동경대에서 주최한 적이 있는데 이 때 시미즈의원도 참석하였습니다. 그동안 왜 일본에서 이 문제를 위한 ‘입법’이 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던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 이 문제에 관한 그분의 진정성과 헌신적인 노력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분이 살아생전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가슴 아프게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안부문제는 사실 더이상 위안부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년 이상의 세월을 거치면서 관여해 온 모든 이들, 이 문제로 인한 의견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상처받고 눈물 흘리고 억압받았던 다른 모든 이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오늘 이 자리에 이 두 분을 모신 의미는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위안부할머니뿐 아니라 이 문제에 오랫동안 관여해왔던 이들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위안부할머니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오기로 약속했던 분들도 결국 이 사회에 얼굴을 드러내는 일 자체, 혹은 자신의 ‘다른’ 목소리를 공중 앞에서 내는 일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한 분들을 굳이 모시는 일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해야 할 일은 영상과 목소리로 준비된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러한 ‘부재’의 의미를 생각하는 일이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 2. 조선인 위안부와 ‘법’

오늘, 위안부를 둘러싼 논의를 대표하는 것은 ‘강제성’ 여부입니다.

강제성을 주장하는 이들은 ‘법적책임’을 주장하고, 강제성을 부정하는 이들은 오히려 과거보다 후퇴하여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조차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연계되는 형태로 한일양국은 위안부에 관해 ‘매춘부’와 ‘소녀’의 이미지를 각각 공적 기억화하며 (자세히는 졸저 『제국의 위안부-식민지 지배와 기억의 투쟁』 참조, 2013) 대립중입니다.

그런데 1965년에 만들어진 한 한국영화는(정창화<하르빈강에 노을이 진다>) 그러한 공적 기억이 어디까지나 1990년대의 시대와 사회가 필요로 했던 기억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영화 참조)

태평양전쟁시대의 버마 전선이 무대인 이 영화는 영화 속의 조선인 학도병들이 아직 40대였을 때 만들어져 공개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어떤 의미로건 학도병들의 기억과 동떨어진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영화에는 위안부가 등장하는데 조선인장교는 그녀들이 자발적으로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인식의 진위여부를

떠나 위안부를 둘러싼 1960 년대의 한국의 기억이 1990 년대의 기억과는 달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위안부여성은 `간호부가 되는 줄 알고 왔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속인 주체는 대체적으로는 일본군이기보다는 업자였겠지만, 여성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고, 일본군이 강제할 리가 없다고 말하는 `친일파` 학도병장교를 향해 말합니다. `일본제국주의에 속아본 일이 없으시군요?`

이 장면은 조선인위안부문제의 본질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우선은 일본군이 직접 강제연행이나 인신매매를 지시하거나 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 그럼에도 그녀를 그곳에 데려온 주체는 다름 아닌 `일본제국주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꽤 정확한 인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민지화된 땅의 젊은이들로 하여금 익숙한 고향을 떠나 멀리 버어마까지 가서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도록 한 것은 분명 `일본제국주의`였기 때문입니다. 이 여성은 장교에게 배속된 것을 다행스러워 하지만 그건 `병사에게 갔으면 지옥`이었을 것이라는 말에서 드러나듯 이 문제에서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자세히는 2013 년여름에 한국에서 낸 <제국의 위안부—식민지 지배와 기억의 투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여성이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이 영화는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었거나 보이지않은 상처투성이가 되어 귀국했거나 남았겠지요. 말하자면 모두가 전쟁터에 배속이 된 것은 아니었지만 위안부들의 운명은 기본적으로는 전쟁수행을 위해 목숨을 바쳐야 했던 `군인`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혹 살아 돌아왔다 해도 그들은 신체의 일부를 훼손당한, 이를테면 상이군인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동원당한 군인들에 대한 보상에서 죽은 자 중심이긴 했어도 남성들을 위해서는 그 보상의 틀—범이 존재했음에도 위안부들에게는 그러한 범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디다. `대체일본인`이 되어 일본의 전쟁에 생명을 던졌던 조선인 병사들은 야스쿠니에 모셔졌고 약속되었던 보상은 훗날 한일기본조약때 충분하지는 않아도 논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하지는 않았어도 한국정부를 통해 보상금이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똑같이 전쟁에 동원되었지만 위안부여성을 위한 법은 존재하지 않았습디다. (제국)국가는 남성들을 전쟁에 동원하면서 남성들을 위한 `법`은 준비했지만 여성들을 위한 법은 만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위안부문제에 관한 일본의 보상과 사죄는 필요하지만, 그를 묻기 위한 범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는 근대국가의 시스템자체가 남성중심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본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고 싶어도 그 근거가 되는 `법`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법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먼저 그 곳으로 돌아가 논의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는 한국이 요구할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일본이 주체적으로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동시에, `법`이라는 개념이 원래 국가시스템을 떠받치는 것인 만큼, 그러한 국가를 대표하는 `법`에 구애하는 발상이 과연 윤리적인 해결에 어느정도 기여가능한지도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은 때로 마음을 담기도 하지만, 이 문제를 둘러싼 `법논쟁`이 대체적으로 사죄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90 년대의 일본국민들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었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서도 물어져야 합니다. 그건 1965 년에 보상은 끝났다고 말하는 일본정부나,

개인의 청구권이 남아있다고 주장하는 한국정부가 함께 되새겨야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국이 주장해 온 `법적책임`요구의 문제 중 하나는, 90년대 초에 위안부문제의 본질을 `소녀의 강제연행`으로 생각했을 때 제기된 주장이라는 점입니다. 이후 20여년동안 위안부에 관해 새로운 지식이 많이 생겼음에도 처음의 요구가 전혀 변하지 않은데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새롭게 알려진 사실이란, 문제를 제기한 한국의 지원단체가 정신대와 위안부를 착각했었다는 점, 업자가 군대와 위안부를 매개했다는 점, 무라야마 담화가 실은 자민당의 전후처리에 관한 사고와 이어져 있었다는 점 (아사노 토요미), 한국에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로만 이해되었던 `아시아여성기금`이 실은 고노담화와 무라야마담화의 정신을 이어받은 것이었다는 점, 그 기금을 받은 할머니가 60명이나 된다는 점, 한일수교때 일본이 개인배상을 남겨놓자고 했는데 한국정부가 대표해 받아버린 점등입니다. 물론 그 모든것을 감안한다 해도 여성들에게 `지옥`을 경험하게 한 책임이 일본제국에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는 어떤 방식의 사죄와 보상이 이러한 모든 사항을 염두에 두면서 양국민들의 이해와 합의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까지의 주장과 거부는 양쪽 다 이런부분에 대한 주의를 깊이 기울이지 않았습니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이 집착하는 `강제연행당한 소녀`의 인식은, `매춘`에 대한 차별의식을 만드는 것이어서 일본의 부정과들이 주장하는 `자발적 매춘부`관을 실은 지탱해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오늘 위안부할머니들을 결국 이자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그런 인식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위안부문제를 논하는 데 있어 물리적 강제연행인지 아닌지, 순진무구한 소녀인지 매춘부인지의 논의는 더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경험을 보면 그 경험의 참혹성은 그러한 `원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의 영화에 나오는 이른바 `매춘부`처럼 보이는 위안부에게도 `지옥`은 존재했다는 것도 그것을 말해 줍니다.

### 3. 일본의 `부정`의 문제

일본에서는 지금 고노담화를 부정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일본군, 일본남성들에게 식민지의 여성이 어떤 존재였는지는 다음과 같은 일본인의 글이 여실히 보여줍니다.

私はいま眼のまえにひとりの女を想定する。それが性の対象と仮定する。彼女が朝鮮の婦人であれば、われわれは容易にサディストになりうるのである。もし彼女が欧米の婦人であれば、われわれは容易に不能者になりうるのである。われわれのエロスはこの二つの極のあいだを揺れる。性行為による主体の抹殺・消去が快樂の極みであるのと同じように、われわれのロゴス(論理)も主体の抹殺を通してファシズムに容易に近づきうる性質をもつ。われわれのエロスもロゴスも、ともに自己もしくは他者の権力の領土内におい

て発揮されていた。(村松武司「性と専制」、1976。〈遙かなる故郷—ライと朝鮮の文学〉)

여기서의 관계가 `폭력`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주체의 말살`이라는 상상을 가능케 한 정복욕—식민지화함으로써 가능했던—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조선인위안부란 그들이 언젠고 그런 `정복자`의 기분을 맛볼 수 있는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위안부문제가 `성폭력` 문제라면, 꼭 강제적이거나 물리적인 폭력이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그러한 정신적인 폭력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하의 글은 왜 조선인위안부가 많았는지에 관한 배경의 일부를 보여줍니다.

昭和 19 年に入って湘桂作戦に伴う兵員の動きは慌ただしくなったものの慰安所は表面上いつもと変わりなくにぎわっていた。

借金を皆済した女たちは航海の危険のために内地への旅行が困難となり、

「自前」として慰安所に残るか、民間料亭の仲居になった。(中略)

湘桂作戦前段作戦で京漢鐵路が開通すると、朝鮮人慰安婦は華北經由で陸路補充されたが、内地慰安婦の補充は、東支那海、揚子江の航行の困難が増すにつれて、先細りになるのは目に見えていた。

(「漢口慰安所」、221

ページ,図書出版社、1983)

전쟁말기에 조선인 위안부가 많이 동원되었던 것은 지리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식민지적 가난과 함께 이러한 배경도 다수의 `조선인위안부`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야말로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 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하의 글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위안부가 매춘부인지 무구한 소녀인지의 구별이 위안부의 체험의 참혹성을 생각하는 일에 더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その頃(注一ミンダナオ島のタバオ二いた時)は,現役の若い兵隊さんばかりで一日 7、8 人が限度、楽じゃないけど体を悪くすることはありませんでした。半年ぐらい働いて、去年の 10 月末にこのラボウルに来たんです。ここでは,大きな部隊(38 師団<名古屋>)の専属になって、とても忙しかったんです。毎日朝から 12、3 人もの兵隊さんの相手をさせられてお金にはなりましたが、辛いんですよ。それで,辛いというと、"最前線の女は、一日 30 人もの相手をするのに、お前たちはなんだ"と叱られるのです。でも 30 人なんてとても、せいぜい 20 人がやっと、1 週間も続いたら体を悪くしますよ。そのうちに専属の部隊が、ガダルカナルに出て行って、すっかり暇になり、そこでそんな慰安婦ばかりが集められて、通過部隊専用に使われたんです。(「青年将校と慰安婦」、みやま書房、1986、66 ページ)

이 글은 일본인위안부의 글입니다. 그녀들 역시 하루에 다수의 병사들을 상대해야 했지만 한국에는 일본인 위안부의 존재자체가 의식되고 있지 않습니다. 위안부문제는 실은 일본국가가 자국의 여성들에게도 강제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고노담화를 수정하려는 부정자들이 `강제성` 혹은 `매춘`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고통을 당한 자국여성들을 먼저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식민지 여성들은 그녀들을 `대체`하기 위해 투입된 존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 4. 한국의 운동박식과 결과

한국에 순진무구한 소녀상을 정착시킨 것은 한국의 위안부운동을 이끌어 온 지원단체입니다. 중요한 것은 20 년이상 지나면서 새로 알려진 사실들이 조금씩 운동과 전시에 반영되면서도 그러한 인식의 변화가 언론에 공식적으로 알려진 적은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로, 변함없는 운동의 주장이 20 년 이상 한국사회에 정착되면서, 90 년대에는 분명 존재했던 일본국민전체의 `사죄하는 마음`이 20 년 후의 오늘, 오히려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한국이 비판하는 아베정권의 탄생에 그러한 한국의 운동과 정부대처가 영향을 끼친 부분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다시말해 일본의 우경화는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한국의 대일자세가 그렇게 만든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 눈에 띄게 늘어난 혐한 현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인관계뿐 아니라 국가관계도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중에는 심각한 차별주의자들이 존재하지만 운동이 꼭 정확하지만은 않은 정보를 유포하는 한 그들에 대한 비판의 효력은 약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정황은 제대로 인식되지 않았고, 한국의 해결운동은 세계로 영역을 넓혀 1 억명서명운동, 기림비 세우기, 정부장관과 대통령의 세계를 향한 일본비판으로 확산중입니다. 문제는 한국홍보전문가, 사이버외교사절단, 가수, 여성부흥회까지 함께 하는 그런 활동이 꼭 정확한 정보에만 의존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2014 년 3 월 한 지원단체가 주최한 대학생이벤트는 20 만명의 조선인소녀가 끌려갔다는 내용의 포스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행사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행사였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들이 일본의 부정파들의 편향된 정보와 인식을 반성시키거나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키고 혐한인식을 확산시킨다는 점입니다. 오늘의 양국간의 대립의 배경에는 실은 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제 문제자체는 잘 모르던 양국국민들까지 부정확한 정보와 부정적인 감정만을 공유하면서 이제 위안부문제가 해결된다 해도 양국민들의 감정치유는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2014 년 1 월에 프랑스에서 열려 한일간에 갈등을 빚었던 앙굴렘만화전시는 그런 한일간 현황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태였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반발을 그저 사죄의식이 없어서라고만 생각했고 실제로 그런 이들은 없지 않은 듯 하지만, 그러나 반발의 근본은 위안부에 관한 표현에 사실과는 동떨어진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프/오리발일본도)그럼에도 앙굴렘-전시는 부천을 거쳐, 서울 한복판에서 전시되면서 수많은 학생들에게 관람되면서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키워나가는 중입니다.

여성부는 올해는 시나리오를 모집한다고 하는데, 현재와 같은 방식이 위안부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 20 여년의 세월이 증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 5. '말할 수 없는 구조'를 넘어

한국사회의 '말할 수 없는 구조'는 한가지 의견과 인식만이 받아들여지는 지극히 경직된 사회구조가 만든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 구조 속에 위안부 할머니들까지도 갇혀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생각을 하면서도 말하지 않거나 말하지 못하는 구조는 오늘까지 그렇게 우리 사회 전체에 강력하게 살아 있습니다. 2011년 여름의 현재판결에 대해 비판적인 법학자조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두려움이지만 그건 그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의 목소리 외에는 용인하지 않는 우리자신이 만든 일입니다.

2014년 4월, 세월호의 비극을 통해 우리는 지금 한국사회의 가치관이 하나로 집약되었던 결과로 빚어진, 너무나도 취약한 사회구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두고도 한국사회는 분열과 혼돈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안부문제를 둘러싼 상황이 세월호의 비극을 둘러싼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생각만이 존중되는 사회, 국가에 그 목소리를 대표시키는 사회는 '다른' 목소리를 가차없이 억압하고 배제하며 스스로를 국가화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삶의 모습이 인정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듯 한국사회가 보다 건강하고 지혜로워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시급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는 한 현재의 인식과 구조는 유지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안부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 그리고 이 모임에서의 이야기를 듣고 보게 될 모든 분들이 오늘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따라 위안부문제를 둘러싼 상황은 바뀔 수도 있고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위안부문제의 전환점을 만드는 것은 사실은 이 모임을 준비한 저희들이 아니라 여기 와주신 여러분들입니다.

때마침 한일간 정부부처 국장급 협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위안부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두 번 놓쳤습니다. 1990년대와 2012년 봄입니다. 이번 기회는 세번째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더이상 위안부 할머니들을 국가나 단체의 자존심을 위한 인질로 삼지 않아야 합니다. 과거에 전쟁수행을 위해 국가에 동원되었던 분들을 또다시 국가의 혹은 남성들의 '체면'이 이용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세월호 사건에서 한국의 대통령은 일본의 구조지원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만든 것은 취임이후 줄곧 일본과의 대화를 거부해왔던 대통령의 체면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은 대통령을 그렇게 만든 것은 일본관련 학자나 지원단체나 그들의 불신을 공유한 우리 자신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어린 학생들을 죽이도록 만든 구조에서 우리는 아무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뒤늦게나마 말해야 하고 들어야 합니다. 우선은 각자의 각 세력에 의해 오랫동안 인질이 되었던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그들이 이제는 반목과 불화가 아니라 용서와 화해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오늘의 모임을 만든 것은 그런 바람이라는 것을, 이미 하늘나라로 떠난 위안부 할머니들과 너무나 어렸던 꽃같은 생명들에게, 들려주고 보여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